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. 2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**영국, '전례 없는 테러 위협 증가' 경고**

- 1.20 외신은 영국 경찰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테러 관련 정보가 25% 증가하고 테러 범죄로 33명이 체포되는 등 테러 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경고했다고 보도

※ 테러 위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공식적인 테러 위협 수준은 변동이 없이 'Substantial(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당한 수준)*'을 유지

* 영국 테러 단계 : Critical(위급)-Severe(심각)-Substantial(상당)-Mderate(보통)-Low(낮음)

중 동

○ **이스라엘, 국내·외 압박에 '2개월 휴전' 제안**

- 1.23 언론은 이스라엘이 '하마스 완전소탕'을 고집하였으나, 국내 여론과 美·EU 등 국제사회 압박으로 인해 하마스에 '인질 전원 석방'을 전제로 2개월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보도

※ 하마스에 붙잡힌 130여명의 인질을 단계적으로 모두 석방하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軍 철수 및 팔레스타인 주민 복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**에콰도르, '방송국 난입' 수사 검사 총격 피살 발생**

- 1.18 언론은 에콰도르에서 지난 9일 방송국에서 벌어진 무장 괴한 침입 사건을 담당 수사하던 「수아레스」 검사가 대도시 과야킬시의 도로에서 무장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고 보도

※ 에콰도르는 지난 7일 갱단 두목이 탈옥한 이후 대법원장 자택 주변 폭탄 테러 등 전국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

미 주

○ 美, 후티叛軍의 서방軍 공격 가능성 경고

- 1.22 언론은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이란 무기의 추가 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, 서방 군대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미국 당국이 평가했다고 보도

※ 백악관은 후티叛軍이 선박 공격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습을 지속한다는 방침

○ 美, 이스라엘-하마스 협상을 위한 중동 특사 이집트·카타르 방문

- 1.22 언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투중단 또는 종전 등 협상을 위해 「브렛 맥거크」 백악관 중동 특사가 이번 주 이집트와 카타르를 방문한다고 보도

※ 이집트와 카타르는 그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해 온 국가이며, 협상안은 민간인 인질 석방과 가자지구 이스라엘군 철수, 드론 감시 중단 등의 내용

아·태평양

○ 中, 이란-파키스탄間 충돌 중재

- 1.21 「마자오쉬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최근 상대 영토內에서 공습을 주고받으며 충돌하자, 중국은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

※ 1.16 이란은 파키스탄內 이란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조직을 겨냥해 공습을 가하고, 1.18 파키스탄은 이란內 자국 출신 테러조직에 대해 보복 공습 감행

○ 파키스탄, 軍 교육기관 보복공격 우려 잠정폐쇄

- 1.23 언론은 파키스탄 당국이 발루치스탄 해방전선(BLF)에 의해 육·해·공군이 운용하는 대학들을 보복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잠정폐쇄 조치를 했다고 보도

※ 파키스탄이 최근 18일 발루치족 분리주의 무장조직(발루치스탄 해방전선, BLF)의 이란 內 은신처를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부언

최근 주요 테러사건 Weekly Terrorism Trends

후티 반군, 예멘 정부군 훈련소 미사일·드론 테러

○ '20.1.18 후티반군이 예멘 마리브州의 정부군 훈련소 內 모스크(이슬람사원)를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, 100여명이 사망하고 수십여명이 부상

- 同 테러는 예멘 정부군이 사나 북부의 니흠 지역에서 후티 반군을 겨냥한 광범위한 군사 작전을 개시한 뒤 하루 만에 발생

※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과 親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 사이의 충돌이 수개월째 소강상태를 보이던 가운데 발생

○ 예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망자에는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다며 "후티 반군들은 무자비한 복수에 직면할 것"이라고 경고

○ 한편,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안보와 안전을 해치는 모든 폭력을 거부한다며 후티 반군의 同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

테러 단체 Weekly Terrorism Trends

< 후티 반군(Al Houthi Rebel) >

■ **(결성)** 시아파 수괴 후세인 바드레딘 알 후티('04년 정부군 공격으로 사망)가 정부의 부패와 친서방 정책, 시아파에 대한 차별에 불만을 품고 결성
※ 테러단체 지정 : '14.3 사우디아라비아, 美 '24.1.17(30일 후 시행 예정)

■ **(핵심인물)** 압둘 말릭 알 후티(창설자의 동생, 現 지도자)

■ **(활동지역)** 사다·알조프·암란州 등 예멘 북서부지역

■ **(활동수법)** 정부軍 및 사우디 주도 수니파 연합국 대상 게릴라戰 전개

■ **(주요동향)** · '19.6 사우디 아브하 공항 등 주요시설 미사일·드론 공격(40여명 사망)
· '21.11 사우디 아람코 정유소 드론 공격(3명 사망)
· '22.1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, 정유시설 드론·탄도미사일 공격(3명 사망)

※ '22.4월 UN 중재로 예멘 정부군과 휴전 합의 후 '22.10월까지 2차례 연장되었으나 추가 연장 실패 후 후티 반군-정부군 간 군사적 충돌 지속 中